

문화포커스 2022 제주 공공 공연장 라인업

기획 공연 공동 유치에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

제주아트센터·서귀포에당서 뉴욕필 현악 4중주 공동으로 서귀포에당과 도문예회관은 공동 제작 콘텐츠 배급 시도 제주 예술인 공연·교육 늘려



2월 25-26일 제주아트센터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잇따라 초청 연주를 펼치는 뉴욕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한문연) 회원 기관이자 제주 지역 문예회관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공연 기획자를 1명씩 보유하고 있는 이들 세 공연장에서 마련한 2022년 기획 공연은 전년보다 그 건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공연장 간 협업이 늘고 지역 공연 예술인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가장 먼저 새해 라인업을 공개한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는 이달 18일 바리톤 고성현, 테너 이정원의 신년 듀오 콘서트에 이어 뉴욕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2월), 피아니스트 조재혁 리사이틀(4월), 소프라노 조수미&필하모닉앙상블(13인의 빈필하모닉)(5월), 피아니스트 박재홍 리사이틀(7월)이 잇따른다. 6월 개관 8주년 기념공연에는 가수 문희경, 양지은 등 제주 출신 '스타'들이 초청됐다. 어린이날 100주년 등에 맞춘 몽고메리의 소설 '빨

강 머리 앤' 원작의 뮤지컬 '앤'(3월), '피노키오' 속 제페토의 눈으로 해석한 난버벌 퍼포먼스 판타지쇼 '드림'(5월), 동화 '신데렐라'를 모티브로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5월) 등도 있다.

서귀포에당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은 글로벌 오페라단 단장인 김수정 감독,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정상급 성악가들이 호흡을 맞춰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선보인다. 제주도성악협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치마로사의 오페라 '비밀 결혼'도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제주아트센터는 1월 제주 음악인들과 공동 주관한 제5회 제주국제 실내악페스티벌로 기획 공연의 문을 연다. 2월에는 뉴욕필하모닉

트링 콰르텟, KBS·한전전력공사와 공동 주관하는 제28회 KBS한전음악콩쿠르, 3-4월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펼치는 문화가 있는 날, 6월 유니버설발레단의 명작 발레 갈라 공연이 관객들과 만난다. 7-8월에는 제주 출신 청년 예술가들의 초청 무대를 계획 중이다. 9월 3-4일에는 제주 4·3을 다룬 창작오페라 '순이 삼촌'을 서울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올린다. 제주 출신 김철진 등 도내의 무용인들이 꾸미는 전국 무용인한마음축제도 하반기 무대를 채운다.

제주도문예회관은 1월 제주 극단 가람의 '인덕을 넘어서 가자'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한문연 공모를 통해 도내의 우수 작품 초청 공연을 펼쳐놓을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는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청년 예술인 공연 등 제주 예술인들의 무대를 기획했고, '함께하는 트라크마당 페스티벌'은 출연단체를 공모해 6월 중 '문화가 있는 날'로 이어간다. 도내 공연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공연 공모도 전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다.

이들 공연장의 라인업 중에서 뉴욕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초청 무대는 제주아트센터와 서귀포에당이 공동 유치해 2월 25일 제주아트센터, 2월 26일 서귀포에당에서 차례로 연주를 갖는다. 도내 공공 공연장에서 초청 공연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유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한문연의 문예회관 공동제작 콘텐츠 배급 프로그램은 서귀포에당과 제주도문예회관이 손을 잡는다. 이 사업은 창작 뮤지컬을 공동 제작해 도내의 문예회관을 순회하며 공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예술인 협업은 공연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에서도 그 기회를 늘렸다.

김미현 서귀포에당 공연기획자는 "제주에는 운송비, 항공료 등으로 초청 공연에 따른 예산 부담이 크다"면서 "이번처럼 공연장 공동 기획이나 공연 유치가 성사될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더 많은 관객들이 가까운 공연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 기회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황학주의 제주살이 (19)

예술가

강요배 선생과 낯을 했다. 그 시간은 살아온 만큼의 정적의 무익이 줄을 당기며 알지 못할 강을 건너는, 마치 출나룻배에 탄 듯 참 부드러웠으며 '귀덕화사'라 이름 붙여진 작업실은 개천가에 넓게 자리하고, 모처럼 날도 포근해 마당에 빨래나 그릇을 말리기에 낯설기에도 좋은 날이라고 나무들 사이 수선화 꽃들은 속삭였다. 우리는 누런 장판지 위에 앉아 창밖을 보며 바람이 잠깐씩 이는 세상의 한켠에 있었고, 쇠물담 한 마리가 물 위를 살살 헤엄쳐 나아가듯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강 선생은 막걸리를 30년 먹은 사람이라 막걸리 다룰 줄을 안다며 제주막걸리를 두 병씩 부어 노란 양은주전자에 채웠다. 대구미술관 이인성미술상 수상자 전시회가 며칠 전에 끝난 참이라 축하의 말을 더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작품 그 자체일 것이라 예뻐고, 그림만 하면 그림이 가능하다고, 이것저것 하며 여쭙다보니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말은 그렇게 하며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이번에 대구를 발각 뒤집어 놓고 왔더니 구부정한 외로움이 환하고 큰 웃음을 지었다. 회색으로 내려앉은 천변의 도드라진 것과 오목한 곳에서 반사되는 빛이 다가오는 시늉만 하지 미동이 없더니 어느 순간 산야가 다색으로 변하며 금세 창문 가득 어둠이 밀려오는 것이었다.

바깥이 캄캄하도록 술자리가 끝나지 않자 걱정이 된 부인이 작업실에 오셨으나 우리의 이야기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시는 시인이 고립되는 것을 막아주고, 미술은 화가를 고립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정치와 자본의 자식같이 작품을 길러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창조하는 사람은 창조하되 인생의 길은 결국 만나는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나눴고, 예술가란 제 마음의 종을 칠 수 있어야 하며 단번에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작품을 해야 한다는 말을 나는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귀덕화사'에서 정념과 죽음의 밀접함에 대해 또 한 예술이란 결국 인간과 자유에 관한 문제와 겹치며 뒤섞여 있다는 생각을 곱씹었다. 그 증거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작품 그 자체일 것이다. 잘 만들어진 대구미술관 전시 도록을 취한 눈으로 뒤적이며서 귀가하는 나의 밤길은 자꾸만 옆으로 기울었다.

벌써 1월의 반이 지났다. 새해란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뜻이며, 마르케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잘못이나 불행도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오늘은 빛이 다가오는 시늉만 하지 미동이 없더니 어느 순간 산야가 다색으로 변하며 금세 창문 가득 어둠이 밀려오는 것이었다. 바깥이 캄캄하도록 술자리가 <시인>

비양도 등 탐사해역 출수유물 한곳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주 수중 유물 신고 총 9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지난 10여 년간 진행한 수중문화재 탐사 결과를 담은 '수중문화재 탐사해역 출수유물보고서 1'을 최근 냈다. 제주시 비양도 해역 등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유물이 발견신고된 바다에서 행해진 수중문화재 탐사에 수습한 수중문화재 156점을 수록한 보고서다.

이 중에서 비양도 해역은 2020년 3월 수중지표조사에서 중국도자기 등의 유물이 확인됨에 따라 그해 6월 수중탐사가 이뤄졌다. 조사팀은 비양도 포구와 그 주변에 대한 탐

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고려시대-일제강점기의 유물과 신창리 수중유적에서 출수된 것과 유사한 청자편 등이 확인됐다. 출수 유물은 청자음각선분발, 청자양각연판 분발편, 청자음각화분발편, 흑유호, 도기사편편호편이다. 비양도 해역의 경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창리 수중유적에 비해 현재까지 출수된 유물 수가 극히 적고 분포 범위도 협소하다.

한편 제주 지역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접수된 수중 유물 신고 건수가 총 9건에 이른다. 이는 발굴조사 1건, 탐사 2건, 조사보류 5건(대수심 등), 비문화재 1건으로 이어졌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측은 "다량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해역이더라도 수중문화재 정보를 공유하고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처음 탐사해역 출수 유물 보고서를 묶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한라도서관 '독서 모닝콜'

한라도서관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아침독서'로 불리는 '독서 모닝콜'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비즈니스, 인문, 자기계발, 힐링, 자녀교육 등 5가지 분야의 도서 요약 정보를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알뜰톡이나 문자로 발송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책 정보를 안내해 독서에 대한 관심을 키울 목적 등으로 기획됐다. 이 서비스는 제주도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숙희 관장은 "마음의 백신"인 독서로 코로나 불투명 극복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위안이 되는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석재부

- 불상전문제작 (제주중문에서)
- 비석→ 직접가공 및 설치
- 석물→ 일절완비
- 돌하루방, 물허벅, 해녀상 일절가공
- 제주 전시장 (중문고등학교앞)
- 납골묘, 평장묘 전문

장례부

- 1) 1급 장례지도사 5명 보유
- 2) 장의차량 리무진 및 장의차 7대 보유
- 3) 제주의료원 협력업체
- 4) 서귀포의료원 협력업체
- 5) 24시간 출동 대기
- 6) 장례용품, 도우미
- 7) 매장 및 화장, 이장

대표 박복현 010-3698-0402, 010-3693-4333 E-mail. qhrgus4333@hanmail.net

중문 석재 장의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834-5 Tel. 064-738-4333 Fax. 064-738-4336